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⑤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후세 부여국(夫餘國)에도 여전히 이러한 풍속이 전해져 역시 금수와 가축의 이름으로 벼슬을 일컬었다 하는데, 이를 모두 빠짐없이 적을 수는 없다.

神市氏, 旣立敎御民, 民皆協洽. 乃登太白之, 臨大荒之野, 觀天地寂然而氣機無息, 日月奔馳而貞明不易, 春秋代序而萬物循回, 乃推天地玄妙之理, 倚數觀變而創成人民依從之則, 是乃易理之原也. 當是之時, 遼瀋.幽燕之地, 已爲我族耕農游牧之所. 伏犧氏, 適以是時, 生於風族之間, 熟知倚數觀變之道, 乃西進中土, 代燧人之世而爲帝, 又得史皇之輔 河圖之瑞, 畫成八卦, 爲中土易理之元祖. 盖陰陽消長之理, 發源於我而卒爲彼國之用, 近世禹倬, 以傳《易》之故, 反爲偉功, 造翁難測之意, 盖亦怪哉! 伏犧氏, 自能馴伏犧牲, 威降豺豹, 伏犧之名, 因於是也; 生於風族, 以風爲故姓也. 以龍紀官者, 亦原於虎加 馬加之類也.

신시씨가 이미 가르침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니 백성들은 모두 서로 도우며 흡족히 여겼다. 이에 태백(太白)의 꼭대기에 오르고 대황(大荒)의 들녘에 이르러 천지를 바라보니 쓸쓸하고 고요할지언정 그 기운의 틀은 쉼이 없었다. 해와 달은 정신없이 달음박질치면서도 곧고 밝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봄과 가을은 차례대로 잇대어 가고 만물은 쉬지 않고 자꾸만 쫓아 돌아갔다. 이에 천지의 깊고도 묘한 이치는 숫자에 의지하여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을 미루어 깨닫고, 사람들이 의지하여 따를 만한 법칙을 새로 만드니, 이것이 곧 역리(易理)의 근원이다.

당시에는 요동의 심양 및 유연(幽燕)의 땅이 이미 우리 민족들이 농사짓고 유목하던 곳이었다. 복희씨(伏犧氏)가 마침 이때에 풍족(風族)에서 태어나서 숫자에 의지하여 변화를 바라보는 이치에 대하여 자세히 익힌 뒤, 서쪽으로 중토로 나아가 수인씨(燧人氏)의 세상을 이어 황제가 되어 사황(史皇)의 도움과 하도(河圖)의 상서러움을 얻어서 팔괘(八卦)를 그리니, 중토 역리(易理)의 원조가 되었다.

무릇 음과 양이 줄고 늚에 대한 이치는 우리로부터 발원하였으나 마침내 저들 나라의 쓰임이 되어 버리더니, 근세에 와서 우탁(禹倬)이 《역(易)》을 전한 까닭으로 도리어 위대한 공로자가 되었다 하니, 조물주의 헤아리기 어려운 뜻은 또한 괴이하다 할 것이다. 복희씨는 스스로 능히 희생(犧牲)을 잘 길들이고 복종케 하여 그 위엄이 승냥이와 표범에까지 이르렀기에 '복희(伏犧)'라는 이름이 그로 연유한 것이며, 풍족에서 태어난 까닭으로 '풍'을 성씨로 삼았다. 용(龍)으로 벼슬을 기록한 것 또한 호가(虎加)나 마가(馬加)라고 일컬음과 같은 유형에서 근원한 것이다.

神市氏御世愈遠, 而蚩尤 高矢 神誌 朱因諸氏, 并治人間三百六十六事, 男女 父子 君臣 衣服 飮食 宮室 編髮 盖首之制, 次第成俗, 普天之下, 悉化其沾. 制治漸敷, 而政敎禮儀逐漸稍備, 初之于于 草衣木食者, 始入人道之倫矣. 嗚呼偉哉!]

신시씨가 세상을 다스린지 더욱 오래되니, 치우·고시·신지·주인씨 등이 모두 같이 사람간의 삼백예순여섯 가지 일을 다스려, 남녀와 부자 및 군신간의 일이며 의복과 음식 및 궁실의 일은 물론, 머리카락을 땋고 머리를 덮는 일에 관한 법도를 차례차례 풍속으로 이뤄가게하였기에 하늘이 덮고 있는 곳이면 모두 그 교화에 물들어 갔다. 제도로서 다스림이 점차 두루 미치고 다스림과 가르침이며 예절과 의례 등도 점차 따라서 조금씩 갖추어져 가니, 처음에는 아는 바가 없이 제 멋대로 날뛰며 풀로서 몸을 가리고 나무 열매를 먹던 사람들이 비로소 사람된 도리로서의 윤리에 접어들게 되었다. 오호라 그 위대함이여!

夫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六合之內, 聖人論而不議;《春秋·經世》, 先王之志, 聖人議而不辯. 鴻 肇判而萬物滋生, 則余聞諸耆老, 神人降世而民物漸繁, 制治漸敷[政而](而政)敎始成, 則余徵諸斷簡破編. 夫六合之外, 洪荒之世, 聖人曾不詳辨區區, 後生安得以窺其一斑哉! 至如唐虞三代 秦 漢 隋 唐者, 中國歷代之謂也; 荊蠻越裳之屬, 則上古戎狄之稱也. 漢武之世, 始通西域, 月氏 安息 奄蔡 焉嗜 于賓諸國, 始現於載籍中; 多民, 隨畜牧, 逐水草往來者, 及被髮裸身之類. 及若大秦之國, 遠在西海之西, 地方數千里, 領四百餘城, 小國役屬者數十, 以石爲城郭, 列置郵亭, 人皆頸而衣(文)[紋]繡, 乘輜 出入所居, 城邑周(圍)[ ]百餘里, 宮室皆以水精爲柱, 以至殊俗珍風 奇寶異貨之産, 不可 述, 盖想見其殷富盛(疆)[彊]之風矣. 漢.章和中, 班超遣甘英, 由條支欲通大秦而不果, 及至桓帝.延熹中, 其主安敦遣使始通. 降至唐代, 又有 項 吐蕃 波斯 大食之國, 或交侵門洛, 或航通商舶, 而赤髮綠睛 巨幹長軀之徒, 罕至出入宮庭. 宋代, 有提擧市舶司之職, 專管西域買遷之業. 近代, 明.萬曆中, 有利瑪竇者, 自廣東轉入北京, 有數理曆法之書, 使行之從燕還者, 或傳其說. 盖其國, 與古之大秦同在西域之西, 與古來諸國迥殊云. 噫! 天下廣矣, 生民之來久矣. 未知, 後世果有巨人一目之國, 復自東南來, 通於此世否.

무릇 우주의 밖은 성인이 그대로 간직해 둘 뿐 의론하진 않고, 우주의 안은 성인이 대체의 강령만 의론할 뿐 그 근원까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하였다.《춘추》의 <경세편>에 앞선 성군의 뜻은 성인이 명분품절만 의론할 뿐 그에 대한 자세한 시비를 논변하진 않았다 하였다. 천지자연의 원기가 처음으로 나눠지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은, 곧 내가 뭇 노인네들에게 듣기로 신시씨가 세상에 내려옴에 백성과 사물이 점차 번성하고 제도로서 다스림이 점차 두루 미쳐서 사물을 다스리는 일과 가르쳐 육성하는 일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어찌 쪼개고 나누어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무릇 우주 밖의 아주 오랫적 세상에 대해서는 성인들도 아직 하나하나 상세히 나누어 놓지 않았는데, 후손이 어찌 그 일부분일지언정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재혁(부총재) 10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경섭(안동) 20만원
▲권태현(창원) 20만원

소 계 40만원

▣ 대의원회비
▲( )지역농축 모현농원 10만원
성명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9일 지로입금)
▲( )지역농축 강릉남강 10만원
성명확인 부탁드립니다.
(10월19일 지로입금)

소 계 20만원

▣ 찬조금
▲화원군종중 10만원
▲창원시 죽곡(대실)종중 20만원

소 계 30만원

합 계 190만원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화(禍)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 오호(五胡)가 북쪽을 점거하고, 남조까지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오호 가운데 저족(氐族)이 세운 나라가 진(秦)이었다. 이 진나라를 세운 족속은 부(苻)씨인데,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요(姚)씨가 진(秦)을 세웠기 때문에 부씨의 진나라를 전진(前秦)이라 하고, 요씨가 세운 나라를 후진(後秦)이라고 한다.

각설하고, 전진의 세 번째 임금 부견(苻堅)은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포악한 임금 부생(苻生)을 쿠데타로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비록 사촌인 부생을 죽이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를 잘했다. 그리하여 그가 임금이 될 때만 해도 그 나라의 동북쪽으로 전연(前燕)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 전량(前涼)이 있어서 분열된 상태였다.

그러던 것을 그가 임금이 된지 13년 만에 전연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량도 멸망시켜서 오랜만에 북조(北朝)를 통일시켰다. 북조를 통일할 때에 부견은 전연의 내부적 분열을 잘 틈탔었다. 전연의 모용수가 그 황제 모용위와의 반목으로 전진으로 망명을 오자 그를 환영하여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연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유능한 부견은 북조를 통일한 다음에 남쪽에 있는 동진(東晉)마저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생각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이때의 군사력을 보면 전진이 월등히 강하였으므로 동진에서도 전진으로 망명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동진에서는 전진의 공격 앞에서 맥 놓고 있을 수도 없어서 막는 군대를 파견하여 비수(淝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그러나 거의 절망적이었다. 그렇다 해도 사실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쪽이 강을 건너서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물을 사이에 두고는 양쪽 군사가 오래도록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동진에서 전진에 말을 전했다. 두 나라 군사가 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느니 차라리 한번 맞붙어 싸우자고 했다. 그런데 물 가까이에 전진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동진의 군사들이 싸우러 갈 수가 없으니, 전진의 군대를 조금만 뒤로 물려준다면 물을 건너가겠고... 그런 다음에 싸움을 하여 자웅을 결정짓자는 제의였다.

전진에서는 양쪽 군대가 맞붙어 싸울 수만 있다면 승리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깊은 생각 없이 이를 수락하고 전군에 조금씩 물러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승승장구하던 전진의 군사들은 조금 후퇴하라는 말에 놀랐다. 통신수단이 별로 없었던 당시로서는 왜 강한 전진의 군대가 후퇴하여야 하는지를 전군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동진에서 전진으로 망명 와 있던 장수가 후방에서 헛소문을 냈다. 전방에서 전진의 군대가 패하였다고. 이 소문을 들을 전진의 군대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졌다. 전진의 임금 부견도 간신히 돌아왔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패한 것이다.

동진의 정벌에서 한 번 패하자 이번에는 전연에서 망명 온 모용수가 이미 망한 연(燕)으로 달아나서 다시 연(燕)을 세웠다. 전진이 전연을 멸망시킨 지 15년만의 일이다. 또 전진의 장수였던 요장(姚萇)은 전진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진(秦)을 세웠다. 후진(後秦)이었다. 또 다른 장수 걸복국인(乞伏國仁)은 서쪽에서 진(秦)을 세웠다. 진(秦)은 셋으로 나뉘었고, 다시 후연도 들어섰으니, 천하를 통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분열되었다.

부견, 영웅적 활동으로 북조를 통일하고 남조까지 정벌하여 대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단 한차례의 실수로 잃었다. 그런데 그 화(禍)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화를 불러 왔다. 아차 하는 순간적인 실수는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화불단래(禍不單來)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에 이어)

7.인설(仁說)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인(仁)이라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생(生)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이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아직 발현하기 전에 사덕(四德:仁義禮智)이 구비되어 있는데, 오직 인(仁)만이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함육(涵育)하고 혼전(渾全)하여 거느리지 않음이 없어서, 이른바 생(生)의 성(性)이요, 애(愛)의 이(理)이니, 이것이 인(仁)의 본체(本體)이다. 이미 발현된 즈음에는 사단(四端)이 나타나는데, 오직 측은(惻隱)만이 이 사단(四端)을 관철하고 있어서 주류(周流)하고 관철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른바 성(性)의 정(情)이요, 애(愛)의 발현인데, 이것이 인(仁)의 작용(作用)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발(未發)은 체(體)요, 이발(已發)은 용(用)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발해서 인(仁)은 체요, 측은하게 여기는 정(情)은 용이다. 공(公)이라는 것은 인의 근본[體]이 되니, 자기를 극복하여 예(禮)에 돌아감이 인이 된다고 하는 말과 같다. 대저 공은 인(仁)이요, 인은 애(愛)이니,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용(用)이요, 남을 서(恕)하는 것은 그 베풀음이요, 지각(知覺)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일이다." 하였다.

8.심학도설(心學圖說)

임은(林隱) 정씨(程氏:이름은 復心)는 말하기를, "적자(赤子)의 마음은 아직까지 인욕(人欲)이 혼탁(混濁)하기 이전의 양심(良心)이요, 인심(人心)은 곧 욕심에 눈을 뜬 것이다. 대인(大人)의 마음은 의리(義理)가 갖추어져 있는 본심이요, 도심(道心)은 곧 의리에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형기(形氣)에서 나온 것은 모두 인심이 없을 수 없고, 성명(性命)에서 근원한 것은 도심으로 된 것이다. '유정유일택선고집(惟精惟一擇善固執)'으로부터 아래는, 인욕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공부가 아닌 것이 없고, '신독(愼獨)' 이하는 인욕을 막는 곳의 공부이니, 반드시 부동심(不動心)에 이르면 부귀(富貴)가 <마음을> 음란하게 할 수 없고, 빈천(貧賤)이 <마음을> 옮기게 할 수 없으며, 위무(威武)가 <마음을> 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도(道)가 밝아지고 덕이 성립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9.경재잠(敬齋箴)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여, 그 보는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 마음을 침잠(沈潛)하게 하여 상제(上帝)를 대하듯 거(居)하여라. 발은 반드시 무겁게 놓을 것이며, 손은 반드시 공손하게 쓸 것이다. 땅을 밟을 때는 반드시 가려 밟되, 개미집도 피하여 돌아가라. 문을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뵈옵는 것과 같이 하며, 일을 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하되, 조심조심하여서 혹시라도 안이하게 처리하지 말라. 입을 다물기를 병(甁)과 같이 하고, 뜻을 방비하기는 성(城)과 같이 하라. 성실히 하여 혹시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 서쪽으로 간다 하고 동쪽으로 가지 말며, 북쪽에 간다 하고 남쪽으로 가지 말라. 일을 당하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데로 좇지 않게 하라. 둘로 <마음을> 두 갈래로 내지 말고, 셋으로 <마음을> 세 갈래로 내지 말라.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 만가지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지경(持敬)이라고 하니, 지경하면 동(動)과 정(靜)이 어김이 없고, 표리(表裏)가 서로 바르게 될 것이다.

10.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닭이 울어 깨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이 차차 일어나게 되니, 어찌 그동안에 고요하게 마음을 정돈하지 아니하리오. 때로는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며, 때로는 새로 얻은 것을 생각해 내어, 절차와 조리를 요연(瞭然)하게 알아 두어라. 근본이 서게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衣冠)을 단정히 하고 앉아 얼굴빛을 가다듬고 나서, 이 마음을 이 끌기를 마치 돋아 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하여, 엄숙하고 가지런하며 허명(虛明)하고 고요해질 것이다. 이 때에 책을 펴서 성현(聖賢)을 대하게 되면,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안자(顔子)와 증자(曾子)가 앞뒤에 있을 것이다. 성현이 말한 것은 고분고분 공손히 듣고, 제자들이 문변(問辨)한 것은 반복하여 참고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일이 이르면 응하고, 곧 <가르침>을 시험해 본다. 천리(天理)가 혁연(赫然)하여질 것이니, 항상 눈을 여기에다 두어라. 일에 응하고 나면 곧 나는 예와 같아질 것이니,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잡념을 버려라. 동(動)과 정(靜)이 순환할 때에 오직 마음이 <이것을> 볼 것이니, 고요할 때는 보존하고 움직일 때는 살펴서 <정신을> 둘로 나누지 말고 셋으로도 나누지 말라.

〈끝〉

大明浦口의 洛照

▣ 權 寧 翼 (본원부총재)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달려 경기도 김포로 향한다. 김포는 염하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를 마주 보고 잇다.

염하강은 북쪽에서 흘러든 한강물과 서행의 바닷물이 뒤섞여 흐르는 강이다.

낯선 살마들에게 염하강은 그저 강화도와 김포 사이 바다로 보일 뿐.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서해를 만나다. 북에서 남으로 흐는 염하강이 서해와 만나는 지점이 목적지다.

조선시대 군영이었던 덕포진(德浦鎭)과 삼십 여척의 어선이 남아 고기잡이를 하는 작은 어항 '대명포구'가 그곳이다.

강가에 있다는 덕포진인데, 가도가도 산만 보인다. 구불구불 비좁은 산길을 한참 달려가니, 작은 이정표 하나가 덕포진 입구에 도달했음을 알려준다. 아무리 고개를 둘러봐야 나무가 성기게 심겨진 낮은 산과 전답준이다.

포대(砲臺)가 설치돼 있던 군사 요충지이자, 임진왜란·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이기도 하다.

계단을 오르던 찰나, 눈 앞에 황금빛 구릉지가 펼쳐진다. 저 멀리 흐르는 푸른 염하강에 반사된 햇살에 눈이 부시다.

혈전을 펼쳤던 공간이라기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늑해 도리어 유적지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다.

구릉지 위로 난 좁은 산책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발아래로는 15개의 포대가 원형대로 보존돼 있다. 둔덕을 덮고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내 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포대와 포대 사이는 돌담으로 쌓았다. 포가 설치된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네모나게 난 구멍사이로 바깥을 바라본다.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은폐된 공간. 이제는 포성은 사라지고 관광객의 평화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운다.

포대 위를 걸어 강가로 향한다. 바람 속에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소나무와 잎을 모두 떨어낸 참나무와 도토리나무가 겨울 강변 정취를 더한다.

강 위로 갈매기가 난다. 철책이 설치돼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강변에 무리지어 있는 갈대는 바람에 흔들려 '쉬이, 쉬이' 소리를 낸다.

걸음을 옮길수록 강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바람 소리, 갈대 소리 이중주에 어디선가 또 다른 소리가 얹어져 삼중주가 시작된다.

시내가 흐르는 '졸졸' 소리가 아니고, 급류가 바위를 거세게 훑고 내려가는 '콸콸' 소리다.

바람도 예사롭지 않다. 뼛속까지 시리다는 말이 이해된다. 고개를 오른편으로 돌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니 '손돌목'이라고 쓰여 있다. 동절기 이곳에서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부를 정도로 세차다. 손돌목은 김포와 강화 사이 좁은 해협이다.

전설이 전해진다.

고려 고종이 침입한 몽골군을 피해 강화로 가는 피난길 뱃사공이 '손돌'이었다. 고종은 '손돌이 나를 죽이려 험한 강을 지난다'며 목을 베 죽이려 했지만, '손돌'은 '강화에 무사히 가려면 이 바가지를 따라가라'로 말하고 죽음 받아 들였다.

과연 물결이 거칠어지며 강에 띄운 바가지를 따라가니 편한 물길이 이어져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했다. 고종은 이를 미안하게 여겨 후하게 장사를 치러줬다. 손돌은 죽어서도 손돌목 강가 언덕 위에 우직하게 누워 있다.

(다음호에 계속)

前 추밀공파대종회장 一誠 權寧韶 씨 別世

前 3-4代추밀공파 대종회장을 역임한 일성 권영소(一誠 權 寧 韶·충북 음성, 추밀공파 34世)가 지난 10월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권옹은 서울大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 同 서울大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1961년부터 충북음성군 금왕읍에서 '무극 권외과의원'을 운영했으며, 무극로타리 클럽 초대회장, 충북의사회 대의원장, 음성군 의사회장, 3-4대 추밀공파대종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음성지역 발전과 오문 문사진작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성품이 다정다감하고 베품에 모범을 보여주기로 했다.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충북 음성군 금왕읍 행제리 선영에 안장했다.

유족으로서는 박정근 여사에 5남매(장남:권오상(사업), 차남:권오준(의사), 3남:권오영(교수), 2녀를 두고 있다.

안동해동사 신도회장 權 寧 漢 씨 別世

안동과학대학교 처장 권동렬 씨(權東烈)의 엄친인 권영한 씨(權寧漢, 안동해동사 신도회장)가 지난 9월25일 오전 11시 25분 안동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했다. 향년 69세.

27일 3일장. 안동해동사 총무스님의 불교의식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안동시 북후면 연곡1리 선영하에 안장했다.